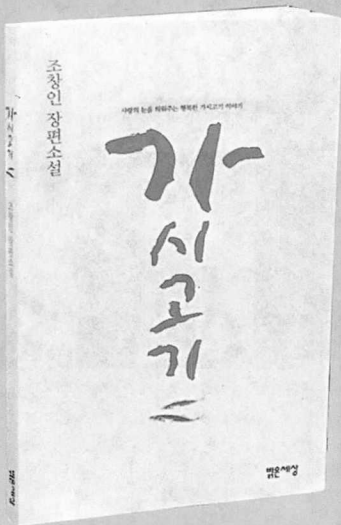


# 가족주의의 복원 열망하는 '아버지의 판타지'

조창인의 《가시고기》를 읽고

백지연 | 문학평론가

《가시고기》가 베스트셀러의 수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이 소설이 '감동'의 스토리 공식을 제대로 소화한 데서 비롯된다. 하지만 이 소설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현실에 존재하는 아버지라기보다는 대중이 갈망하는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이다. 따라서 《가시고기》에는 현실에서 아버지라는 기호가 갖는 존재조건에 대한 여러 질문들이 빠져 있다. 이 소설에는 오직 아버지의 '판타지'만이 있을 뿐이다.



백은세상/A5신/282면/7500원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보면 늘 사람들이 북적거린다. 예쁘게 꾸며진 안내대와 판매 순위를 알리는 표지(標識)에 독자들은 민감하다. 문학에서 베스트셀러 순위가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개봉영화에 평론가들이 매기는 별표 점수가 관객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흡사하다. 누구나 그렇듯이 잘 팔리는 책, 남들이 열심히 보는 책 앞에서는 마음이 약해진다. 사람 많은 영화관에 가야 영화 볼 기분이 나는 것처럼, 책도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돼야 사보고 싶은 것이다.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책이 널리 읽히기를 열망하지만, 결과적으로 독자의 사랑을 받는 책은 한정돼 있다. 신간 코너에 등장했던 책이 베스트셀러 코너나 스테디셀러 코너로 이동하지 못하면 곧 잊혀진다. 수많은 책들이 화려하게 등장하지만 어느 순간 소리소문없이 사라진다.

최근 지속적으로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켜온 조창인의 《가시고기》(백은세상)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책이다. 도서관이나 책대여점에 들러도 며칠을 기다려야 빌려볼 수 있는 책이라니 화제작임에는 틀림없다. 의외의 사실은 이 소설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흔하고 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데 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매우 지루하고 재미없을 듯한 스토리가 왜 그렇게 인기를 모으는지는 책을 직접 읽어봐야 알 수 있을 듯하다.

## '감동의 공식' 철저히 지킨 최루성 소설

《가시고기》의 주인공은 소아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들 다음이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는 헌신적인 아버지다. 아버지는 대필이나 각종 번역거리 등 돈되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아들의 치료에 힘쓴다. 다음이의 어머니는 오래 전 아버지와 이혼한 뒤 자신의 꿈을 좇아 프랑스로 유학가고 유명한 화가와 재혼해 귀국한다. 다음이가 병에 걸린 것을 안 아내는 남편의 노력은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비난을 퍼부으며 다음이를 데려가겠다고 한다. 아버지는 다음이를 위해 산 속에서 은거생활도 해보지만 결국 병원으로 되돌아온다. 병세가 악화된 다음이는 일본에서 어렵사리 구한 골수를 이식받아 기적같이 회생하고 그동안 병간호에 몸이 쇠약해진 아버지는 자신이 간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들을 사랑했던 아버지는 자신의 병을 숨긴 채 아들을 프랑스로 보내고 눈을 감는다.

이처럼 전형적인 최루성 드라마라고 비난할 수도 있는 단순명료한 스토리지만, 이 소설이 독자들

을 움직일 만한 매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친진난만한 다듬이의 목소리와 아버지를 바라보는 관찰자의 목소리를 번갈아 쓰며 서술하는 방식은 독자에게 친근감을 주는 듯하다. 무엇보다도 《가시고기》는 '감동'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든 문학적 허구요소를 집중시킴으로써 독자의 시선을 끌어당긴다. '감동'은 베스트셀러의 절대적인 필요조건이다.

소설에서 '감동'을 자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삶의 역경을 극복해나가는 꾀꾀한 인간의 모습이 부각돼야 한다. 여기에 로맨스와 모험이 어우러지면 금상첨화다. 지루한 병상일지라도 읽힐 수 있을 《가시고기》의 힘은 바로 '감동'의 스토리 공식을 적절히 따른 데서 발생한다. 이 소설에서 인간 승리의 표본으로 떠오르는 주인공은 다름아닌 아버지다. 회복이 불가능할 것같이 보이는 아들을 업고 산속에 들어가 뱀과 약초를 손수 구해 먹이는 아버지의 모습은 눈물겹기만 하다. 아들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됐다가 병원에 재입원하고 골수이식 과정에서 기적같이 환생하는 드라마틱한 사건의 전개과정은 소설을 읽는 독자에게 충분한 재미를 제공한다. 숭고한 부성애의 드라마는 아버지의 죽음에서 절정에 이른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희생하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를 순수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여기자의 모습은 독자의 마음을 뿌듯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 관습적 가족주의에 대한 열망

논픽션, 로맨스, 모험담, 휴머니즘의 감동적 요소가 골고루 갖춰져 있는 《가시고기》는 독자들에게 어필할 충분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가시고기》가 선풍하는 '감동'의 사회적 의미는 베스트셀러의 매력으로 상쇄되기에는 미흡한 뭔가가 있다. 그것은 이 소설이 토대로 하는 '감동'이 암암리에 '아버지의 자리 찾기'라는 명제로 귀결되는 데 있다. 단순하게 말해서 《가시고기》의 주제는 헌신적인 부정(父情)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시고기'는 아버지의 의미를 강조하는 상징물이다. 소설에 나오는 삽화에 따르면 '엄마 가시고기'는 알을 낳은 후 사라지고 '아빠 가시고기'가 알들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다. 나중에 새끼 가시고기가 성장해 자기의 갈 길을 가면 '아빠 가시고기'는 돌 틈에 머리를 박고 죽는다. 작가는 자기의 몸을 희생해 자식을 보살피는 아버지의 깊고 깊은 사랑을 가시고기 일화에 빗대고 있는 것이다.

《가시고기》가 호소하는 '아버지의 사랑'은 근 몇 년간 문화영역에서 다양하게 표출된 '아버지 찾기'의 명제와 호응한다. 한 집안의 어엿한 '가장'인 아버지가 어느새 가정에서 권위를 잃어가고 있으며 참된 존재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세태에 대한 위기감은 아버지 신드롬으로 연결돼 나타난다. 구제금융시기에 선풍적 인기를 끌며 베스트셀러 자리를 오랫동안 지켰던 김정현의 《아버지》(문이당)도 같은 맥락에서 살필 수 있다. 책장암 선고를 받은

중년 남자의 내면갈등을 그린 이 작품은 가족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소외받는 가장의 항변을 담아냄으로써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아버지》에 등장하는 이기적인 가족 성원의 모습은 《가시고기》에 등장하는 속물적인 어머니의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 작가들이 보기에 아내와 가족들은 '아버지' 혹은 '남편'을 가장으로 온전히 대접하지 않을 뿐더러 가장의 참된 존재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이들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런 가족의 무시를 묵묵히 견디고 인내하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로 묘사된다.

《가시고기》에서 아버지는 속악한 세상 사람들과 대립되는 순수 그 자체로 묘사된다. 아버지는 시인의 꿈을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는 여린 사람이다. 그에 비하면 아내이자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자신의 일에만 몰두해 있는 냉정한" 사람으로 그려진다. 시종일관 경우 없고 속물적인 허영덩어리로 묘사되는 어머니의 모습은 변치 않는 아버지의 마음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비정한 모성과 헌신적인 부성의 기묘한 대비는 이 소설 속에 숨어 있는 가치적 편향성을 드러낸다. 인간애의 드라마 속에 숨어 있는 남성의 뿌리찾기 명제야말로 이 소설이 지닌 대중성의 실체를 알려준다. 그것은 관습적인 가족주의의 복구에 대한 열망이며, 인내와 사랑이라는 지극히 추상적인 가치로 귀결되는 달콤한 휴머니즘이다.

#### 대중이 무의식적으로 갈망하는 아버지 그림

《가시고기》가 되살려주는 것은 다름아닌 우리 시대 아버지의 감동적인 판타지다. 그것은 현실 속에 존재하는 아버지라기보다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 갈망하는 아버지의 모습이다. 소설 속의 아버지는 세상의 진리와 선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영웅의 판타지로 상승된다.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 영웅은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으로 혹은 정의로운 경찰과 의사의 모습으로, 또는 믿음직하고 근사한 재벌집 남자로 변신해 우리 곁에 다가온다. 사람들은 영웅이 부재한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의 내면 속에서 새로운 영웅의 신화를 끌어내고 싶어한다. 환자 앞에서 집단이익을 주장하기 바쁜 의료진을 바라보느니 드라마 속의 정의롭고 용감한 의술인을 보며 시름을 달래는 것이 낫다.

《가시고기》에서 독자들이 감동하는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 현실에서 무심하고 권위적인 아버지를 바라보느니 책속에서라도 더없이 따뜻하고 사랑 넘치는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낫다. 그 속에서 사회 현실에서 아버지라는 기호가 갖는 존재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은 묻혀 버린다. 아버지의 판타지만이 있을 뿐 아버지의 모순적인 삶에 대한 깊은 물음이 사라진 이 소설을 읽고 난 기분은 그래서 개운치 않다.●